



박성동

『학력사항』

-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MBA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직무대리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국민소통국 국장
- 제10대 통계교육원 원장
- 통계청 경제통계국 국장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과장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과장
- 1990년도 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수석합격

I. 처음에

남의 합격기를 볼때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들의 경우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음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의 합격기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히 미약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까 염려하면서 펜을 들고자 합니다.

저의 과거의 세월을 저 자신이 편견 없이 기술함이 힘들지라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적어봄으로써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다소의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더없는 영광입니다.

II. 고시 前

저는 부산에서 비교적 어려움 없는 어린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대체로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습니다. 1978년 부산의 가야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응시했으나 낙방, 서울의 숙부님 댁에 기거하면서 J학원에서 1년간 재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힘들면서 순수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979년 사회계열이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로 분리되어 사회과학대를 지원하면서 저의 대학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freshman의 시절은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희망과 낭만의 어울림속에서 세월이 가고 있었고, 대학교 2년 진입시에는 무역학과로 진

입하여 국제경제학을 주로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학부터 시작한 저의 공부는 국제경제학의 난해함을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내성적이었던 저는 별다른 서클활동이나 외부 활동보다는 도서관에 자주 출입하였고, 법대생들의 司試공부하는 모습을 주로 보면서 나 자신도 뭔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대생들과 타과 여학생들과의 들려오는 해프닝도 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상대 출신들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는 공인회계사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공인회계사시험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국제경제학의 학문적 어려움을 피하고 청준의 현실적 부러움을 외면하고자 하였습니다.

Ⅲ. 공인회계사시험에의 도전과 실패

대학 2학년 후반부터 시작한 공인회계사시험의 공부는 겨울방학 중에도 서울에 남아 도서관에서 젊음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방학중에도 학생들로 만원이었으며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 밤 10시에 귀가하는 생활이 연속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후배 성기(현 인천지검 검사)와 함께 숙식하면서 시작한 경우는 뭔지도 모르고 고민하면서, 갈등속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계학 4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데 그쳤고, 부기(회계원리)는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면서 경영학과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주로 들었으나 최초의 의욕과는 달리 약간의 자신감을 얻었을 뿐 경영학 각론의 방대함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8월에 있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대비해서(당시 제1차시험은 교양기 초과목으로 대학 3학년 이상은 면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1학기 종강 후 정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고 절대 공부량의 부족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그 동안 소홀히 한 전과목 이수수가 불가피했으므로 전과목을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으로 수강신청하여 필요학점을 취득했으나, 국제무역론과 국제수지론은 여전히 두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 자신감을 얻고 미시와 거시경제학 전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제도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분리되어, 제1차시험에는 영어, 회계학, 경제학, 상법이 포함되었고, 제2차시험에는 회계원리, 회계이론, 원가회계, 회계감사, 경영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학년 말 겨울방학때는 다음 행의 우수한 성적합격을 목표로 변경된 시험제도에 따라 제1차과목과 제2차과목을 분리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영어는 대학입학시험 이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으므로 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문을 닦치는 대로 읽어 독해력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학과목에서 취약한 것을 알고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행하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풀이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영학의 방대함은 또 다시 저를 괴롭혔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마의 복병이 되어 대학생활 마지막 해를 잊지 못할 추억의 장으로 만들게 될 줄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대학 4학년, 마지막 대학생활은 고민과 갈등의 세월이었고 한편으로는 고교동창들의 따뜻한 인간애를 몸으로 느끼며 서로 격려하는 생활이었습니다.

1982년도 8월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은 영어와 회계학이 어려웠으나, 무사히 합격했으며 드디어 내가 시험공부를 하는 대열에 포함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제2차시험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나 방대한 경영학속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2차시험 성적을 알아본 결과 평균 68점을 득점하고 경영학 37점으로 과락이었으나, 얼마나 원통하고 경영학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무능하고 성실치 못한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 동안 뒷바라지 해준 누이동생에게 미안함 마음이 들었습니다.

IV. 대학원 진학과 공인회계사 시험의 재 도전

대학원 시험이 임박해 있었으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으며, 학교도서관에 가는 것이 부끄러워 집에서 두분불출 누워있는데 운영, 광주, 성기, 중식 등 고교후배가 찾아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대학원 시험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운영, 광주 등과 함께 도서관에 다시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대학원 경영학과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경쟁율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운명의 여신은 재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4학년 종강이후 겨울 방학 때 한 많은 경영학 각론을 모조리 정독하고, 회계학은 원서위주로 통독하였으나 지난

해처럼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원 개강이후 친우 정서, 평기, 소용 등과 같이 공부하면서 경영학을 포함한 전과목을 서브노우트하였고, 1983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제2차시험은 어려움 없이 치뤄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고 평균 68점 정도의 고른 득점이었습니다. 모두 기뻐해 주었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저도 역시 기뻐하고 하나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 시보등록 후 겨울방학 3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원 2학년이 되면서 논문전공을 경영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마아케팅으로 선택하여 임종원 교수님 지도로 『인적판매효과에 미치는 환경특성의 영향-산업마아케팅의 경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남기고, 1985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V. 행정고시에의 도전과 패배의 연속

1985년 3월 석사장교시험에 합격하여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그 동안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와 논문 때문에 잠재적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행정고시에 대한 도전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8월에 입대하였으므로 그 동안 행정고시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자 하였으나 1985년 행정고시 제1차시험은 낙방이었고, 헌법, 민법총칙, 국사 등이 약한 저로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85년 8월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에 입소하여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대학, 서로 다른 전공의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힘든 훈련

과정에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하며, 저의 마음을 다지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1986년 3월 제대 후 삼일회계법인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행정고시를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의 무직상태는 저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 제3차시험(실무시험)도 준비하여야 하므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의 생활은 업무성격상 출장이 잦았으나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회계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에 관하여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시에 대한 열망은 조금도 식지 않았고, 퇴근 후 단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해 8월에 있는 행정고시 제1차시험은 또 낙방이었고, 행정고시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주던 경민씨(현 상공부 근무)는 제2차시험 합격을 해 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11월에 공인회계사 제3차시험이 있었으므로 여기에도 낙방하면 무슨 망신인가 싶어 허겁지겁 9월부터 서둘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저의 집사람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는데,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었으나 문제중심으로 풀고 이론으로 보강하였고, 경영진단은 재무분석위주로 공부하였으며 회계감사는 케이스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제3차시험 합격 후 산업은행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전직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었으나,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직장이라 생각했고, 보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1987년 금융 1부에 배치받아 은행실무를 익

히면서 틈틈히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통신연수과정에서 행정고시 제1차시험과 중복되는 바가 많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해 5월 결혼을 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는 저의 공부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6월에 있는 제1차시험은 1차시험의 공부요령을 터득해서인지 헌법에서 만점을 받는 등 고군분투한 결과 합격이었습니다. 제2차시험의 공부량은 절대부족이었으나, 행정법을 제외한 전과목은 그 동안의 공인회계사 공부등을 통하여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에 있는 제31회 제2차시험은 역시 행정법 과락이었으나 평균은 1점 정도 차이였습니다.

1988년의 제32회 제2차시험에 대비해서 전과목의 서브노우트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 있었던 재정학의 문제에 의외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복지재정의 효용과 한계』에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효용을 언급하는 등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전위효과』의 문제는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축효과의 내용을 용어만 바꿔서 설명하고 말았고, 『공공재 과다공급가설』 문제도 과다공급의 원인과 통제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재정학 과락으로 인한 쓰다 쓴 고배는 과정의 낙방과는 다른 의미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으므로 무어라 말을 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아내도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고, 제33회 제1차시험과 제2차시

험은 동시 합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1차시험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터라 문제집위주로 주로 점심시간에 도서자료실을 이용해서 풀어나갔습니다. 1차시험 전 3일 특별휴가를 내어 마무리 정리를 하고 결과는 예상대로 합격이었습니다. 2차에 대비하여 서브노트 위주로 공부하면서 재정학은 제32회 과락을 의식하여 폭넓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화폐금융론시험을 끝내고 나오니 또 과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0년대 마지막 가을, 떨어지는 낙엽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특히 임신중인 아내에게 낙방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직장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더 이상 염치도 없었습니다.

VI. 마지막 도전, 그리고 합격

1989년 11월 금융 1부에서 출자관리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시 출자관리부 업무는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등 국가경제의 현안이 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子회사반을 담당하면서 子회사의 예산 등에 간여하고 재무부 등 정부부처에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들을 순산하고, 모두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이라 생각하였고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90년 새해를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시험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아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는 전혀 책을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사직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6월에 기업분석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34회 제2차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것에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업분석부 재무분석반은 『재무분석(1990년)』책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서서히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동향 및 기업체 재무분석 내용에 따라 영문 원고를 끝내고 인쇄소로 출장 나가 교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인데 더 이상의 후회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여름휴가, 월차, 연차휴가를 통털어 22일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공부라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황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근처의 독서실에서 1개월 등록하고 식사시간에 집에 오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하루 24시간을 독서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각 과목의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시사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특히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제34회때는 재경직 제2선택과목으로 새로 포함된 국제경제학을 화폐금융론 대신에 선택하였기 때문에 전략과목이라 생각하면서도 과목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외무고등고시 기출문제를 참조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나갔습니다. 시험전일 거의 철야를 하면서 행정법 上下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첫날부터 무리를 하는게 아닌가 싶었으나 행정법에서 과락을 맞으면 다른 과목의 고득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8월 6일부터 4일간 잠원동 경원중학교에서 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시험, 후회나 하지 말자.”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국민윤리의 큰 문제는 시자적인 문제였고, 도서자료실의 논문자료에서 미리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언급하고자 하였습니다(66.33점).

행정법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 32회, 제33회 때부터 예상했던 문제였는데, 쟁송취소와의 차이점에 착안하고 직권취소의 한계에 중점을 두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갔습니다(61. 66점).

행정학은 자신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였으나, 큰 문제로 출제된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동규범』 문제에 있어서 개방화와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58.00점).

경제학은 가장 장기간 공부하였으나 고득점은 힘든 과목이었습니다(60.33점).

재정학은 문제를 보는 순간 고득점을 확신하였고 자신있게 10장을 쓴것 같습니다(74.66 점).

회계학은 매년 고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는데, 공인회계사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답안작성을 하였습니다(74.33점).

국제경제학은 철야로 마지막 정리를 하였는데, 그만큼 불안한 선택이었고 걱정되는 과목이었습니다. 마지막 국제경제학 시간에는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66.00점).

제2차시험 발표는 났으나 제3차시험(면접 시험)에서 2명이 낙방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마냥 좋아할 수도 없었고 주위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무사히 끝내고 성적을 알아본 결과 평균 65.90점이라는 좋은 성적 이었고, 재경직 수석합격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VII. 감사의 말씀

저의 합격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며 저의 주위분들의 도움과 이해가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도와주신 직장동료 여러분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심려를 끼쳐 드렸던 자식을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셨던 부모님께 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무능한 오빠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누이동생과 매부께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손위 동서형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합격은 동고동락하면서 가정과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고 간절히 기도한 아내와 아들 찬일의 합격입니다.